



경기도 의왕시 갈뫼초등학교 6학년 2반 김승원

# ‘장애인 친구들아! 사이좋게 지내자!’

고정욱 글·송진현 그림 | 대교출판 | 166쪽 | 값 6,800원



나는 항상, ‘일반인’ 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장애인’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궁금했었다. 하지만, 사실 특별히 다른 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책은 뇌성마비 장애인 종식이와 형을 부끄러워하는 동생 종민이가 서로를 이해해 나가며 사이좋은 형제가 되어 가는 이야기이다.

난 종식을 싫어하는 종민이를 보고 어째서 그러는지 이유를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이 컴퓨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다고만 생각이 되는 나 자신도 장애인에 대하여 보통 사람 같지 않게 느끼는 것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니 호주의 시드니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주 많았고 공공장소에도 그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을 특별하고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편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 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너무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안경 쓴 나도 장애인이에요” 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한다. 나만해도, 말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시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보았을 때는 제대로 봉사활동도 못 하고 그냥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만 있었다. 책 속에서 종식의 채팅 친구도 처음에는 자기도 등뻬가 휘어서 장애인이라며 웃어넘기더니 종식을 만나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아마 거의 모두 다가 이렇지 않을까 싶다.

위 경우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우스운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어린이들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면 어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높게 쌓아올려진 편견의 담을 무너뜨려 친해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허리가 붙어 있는 모습의 대한민국을 만들 기둥들이 해내야 하는 일인 것이다.

한시빨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모두 지워지고 ‘장애인’ 이라거나 ‘장애자’ 라는 말이 아예 사라진 행복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추천**